이천이십육년 | 봄호(통권 28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말 초대석 |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세상에 없던 놀라운 박물관,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 기획특집 | 통일과 언어의 가치
새로운 통일과 《겨레말큰사전》이 열어갈 미래

남녘말 북녘말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북녘말들



목차

겨레말 | 이천이십육년 | 봄호(통권 28호)



07


10


14


16

02 겨레의 창
다원성을 인정하는 국어정책이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의 출발점 · 최경봉

06 겨레말 초대석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
세상에 없던 놀라운 박물관,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14 심상
봄, 철을 앓다 · 강건모

기획특집 | **통일과 언어의 가치**

18 **새로운 통일과 《겨레말큰사전》이 열어갈 미래**

20 칼럼 1 · 김진환
《겨레말큰사전》을 '하루라도 빨리' 발간하면 좋은 이유

24 칼럼 2 · 김재용
《겨레말큰사전》, 남북 언어의 역사적 통합

28 칼럼 3 · 이지순
언어의 분단에서, 언어공동체를 생각하다

일러두기 | ① 본문에서 중복적으로 쓰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한다.
② 본지에 게재된 필자의 견해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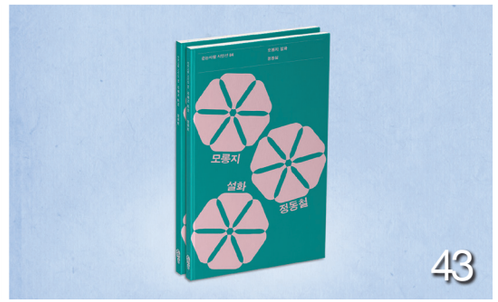

27



30



35



43

겨레말 탐구생활

32 남녘말 북녘말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북녘말들 · 박소혜

36 뜻풀이 깁고 더하기
오호츠크해기단/오호쯔크해기단 · 최성규

40 우리말 보물찾기
모롱지에서 건져 올린 말들 · 정동철

44 이 계절의 겨레말
봄날은 간다 · 한성우

48 겨레말 낱말 풀이



위대한 발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시장 입구에 김승영(설치미술가)의 조형물 〈바벨탑〉이 우뚝 솟아 있다. 대형 스피커로 탑을 쌓아 올린 작품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상징을 떠올리게 한다.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인류의 야망과 오만, 언어의 혼란마저 고스란히 스피커 바벨탑에 담았다. 탑의 원형 구조와 회전 계단식 건축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뤘고, 상설전시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은 스피커 바벨탑에서 하늘과 땅에 울리는 인류 최초의 언어를 만난 뒤에 시작한다.(편집자)

사진 제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김미경** 교정 **홍서현** 펴낸날 **2026년 5월 1일**
펴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9층(공덕동)**
홈페이지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인쇄 **(주)태광P&D**

다원성을 인정하는 국어정책이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의 출발점

글 **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남북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근래 알게 된 사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이 2023년 1월 18일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한의 말을 '괴뢰말'로 지칭하며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남한의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사항을 명기한 발상이 놀라웠다.

더구나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제정은 북한에서 주로 쓰던 '조선말' 대신 '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북남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북의 선언과 연동 짓는 해석은 자연스러웠다. 다만 해석이 자연스러웠음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 "미제에 의한 두 개의 조선 책동"이라는 익숙한 선동과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낯선 선언을 연결 지어 이해하는 건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을 「국어기본법」에 대응하는 텍스트로 읽어야 하는 이유

말의 의미는 표면의 말만이 아니라 그 표면을 떠받치는 내면을 함께 들여다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선언 또한 그렇다. 낯선 선언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야 비로소 '운명적 관계'를 나타내는 '동족, 동질'을 '상황적 관계'를 나타내는 '적대적'과 대비시킨 불균형이 감지된다. 상황적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었다고 '동족, 동질'이라는 본질적 관계가 바뀐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이 선언이 '실질적으로 두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해 왔던 남북의 특수관계'를 비틀어 재구성한 것임을 말해 준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도 그렇다.

적대적인 선언이 곧 단절일 수 없는 분단체제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란 북한의 선언은 우리에게 평화를 정착할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던졌다. 그런 점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제정 역시 남북 언어의 통일 혹은 통합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준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돌출적이고 비정상적인 텍스트로만이 아니라, 「국어기본법」에 대응하는 텍스트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데 이바지"(제1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남한 말을 적대시하는 것'과 '문화어의 규범성을 높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의 「국어기본법」에 대응한다.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국어기본법」은 같은 민족어를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어문규범을 배타적으로 정립하는 법적 근거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그 배타성에는 차이가 있는데,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의 언어 상황을 규범적 판단 대상으로 삼아 적대시한다는 점에서 배타적이지만, 「국어기본법」은 북한의 언어 상황을 규범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배타적이다. 「국어기본법」에서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로 규정되고, 북한 말은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이라는 발전 계획 속에서만 다루어진다.

이처럼 남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배제하면서 남북 언어를 관리해 왔다. 배제의 논리가 공고한 상황에서 남북 언어의 통일 혹은 통합을 모색하자는 제안은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상대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적대성을 노골화하는 뜨거운 배제론이나 상대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관심을 내면화하는 차가운 배제론이나, 통일과 통합의 맥락에서 보면,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

남북의 배타적 의식이 투영된 남북 언어 통일(통합)안의 문제

1961년과 1981년, 북한은 언어정책 기관지를 통해 남북 어문규범의 통일과 통일 사전 편찬 등을 위한 언어학자 공동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남한의 정치적 변동 상황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치적 제안일 뿐이었다. 북한은 1966년과 1987년에 어문규범을 개정하고 1981년과 1992년 그 규범에 따라 우리말을 집대성한 규범 사전을 편찬하였다.

남한의 제안은 달랐을까? 1991년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언어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통일 후 민족 언어생활의 지침이 될 「종합국어통일대사전」"의 편찬을 공식화했지만, "유엔 동시 가입 등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북한 및 공산권 한국인 국어학자들도 참여시켜 범민족적 편찬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조선일보, 1991.6.2.)은 탈냉전 국면에서 나온 정치적 제안일 뿐이었다. 남한은 1988년 어문규범을 정부안으로 공포했고 1991년 시작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사업은 이 규범의 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남북 언어의 통일을 위한 여러 기획이 정치적 이벤트로 소모된 것은 통일을 당위적 목표로 하면서도 각자가 단일한 어문규범을 정립해야 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실제 1986년부터 1992년

까지 6년에 걸친 논의 끝에 완성한 「로마자 표기법 남북 단일안」은, 자음은 북쪽안을 모음은 남쪽안을 채택해 남북 어문규범 통일의 한 방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실의 로마자 표기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언어 현실과 결합하지 못한 어문규범 통일안의 운명은 이러했다.

「로마자 표기법 남북 단일안」의 운명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남북이 자신의 어문규범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남북의 언어 통합 시도는 남북 대결만을 부추길 뿐 언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 보고서』에 나온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남북이 구축한 배타적 규범어가 남북 언어 통합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

(단위: %)

구분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 이탈주민
사례 수(명)	2,021	200	305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78.2	50.0	65.9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통합한다	21.0	45.5	31.8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0.7	2.5	2.0
모름/무응답	0.0	2.0	0.3
계	**100**	**100**	**100**

'통일' 대신 '통합'이란 말을 선택한 데에서, 국립국어원이 획일성보다는 상호 존중의 관점으로 남북 언어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절대다수인 78.2%가 남한말 중심의 통합을 지지하고, '새로운 기준', 즉 중립적 기준으로의 통합을 지지하는 비율은 21%에 그쳤다. 더 흥미로운 건 북한 주민을 접촉해 본 접촉국민이 일반인보다 두 배 넘게(45.5%) '새로운 기준'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 우리는 남북의 언어 문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남북 어느 한쪽으로의 통합에 문제의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해석에 공감할 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접촉국민 중 55%는 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부정적이었을까?", "왜 접촉국민 50%는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을까?"

남북 언어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면, 여기에는 짐작건대 '남북 모두에게 낯선 기준'은 결국 모두로부터 배척될 거라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타당한 것이라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통합 기준은 남한말뿐이지 않았겠는가. 말은 '통합'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남북 언어 통합 과정은 남북 어느 한쪽의 규범어를 배제해야만 하는 대결의 과정이다.

그런데 설문의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 이 설문조사가 과연 남북 언어 통합에 대한 언중의 생각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자도 이 설문조사를 설계한 연구진의 일원이었음에도, 그 당시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는 통합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단일 규범을 전제하고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질문이 단일 규범을 전제한 것이라면, 응답자는 이 틀 안에서 통합 기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설문은 응답자들에게 '남북 언어의 경쟁을 감수하는 것'과 '현실과 괴리된 규범을 감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만약 남북 언어 통합의 기준으로 제시된 '새로운 기준'을 '제3의 단일 규범'과 '남북 병용 규범'으로 분리해 제시한 후 설문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응답자 중 상당 비율은 '남한말 중심 기준'이나 '제3의 단일 규범' 아닌 '남북 병용(倂用) 규범'을 선택했을 것이다. 남북 통합 과정이 남북 대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다수의 생각이라면, 남북 언어를 병용하는 방안이 다수의 선택을 받으리라 예상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사실 남북의 언어 차이 문제를 단일화가 아니라 각자의 언어적 경험을 존중하는 병용의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움직임은 탈냉전 이후 본격화되었고, 그러한 움직임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현실의 일로 만들어낸 동력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족어의 이질화를 막는다는 목표로 시작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남북의 우리말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교포의 우리말을 아우르는 편찬사업으로 확장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모든 겨레말을 공평하게 담아내려는 《겨레말큰사전》은 대립과 경쟁의 구도를 벗어나 남북 언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미리 보여준다.

《겨레말큰사전》에서 보여준 병용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겨레말큰사전》이 현실에서 활용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로마자 표기법 남북 단일안」의 운명에서 볼 수 있듯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이상적 시도 혹은 남북 언어 통합을 명분으로 벌인 정치적 이벤트로만 기억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이 현실에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의 국어정책이 곧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이 되어야 한다.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이 될 수 있는 현실의 국어정책은 남북 언어의 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국어정책이란 점에서, 다원주의적 국어정책과 상통한다.

다원주의적 국어정책은 하나의 중심언어를 세우고 이에 맞춰 획일적인 언어생활을 하는 게 발전이라는 논리가 시효를 다했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다원적인 언어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어정책이 전환된다면, 남북 언어 통합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원적인 언어 현실은 북한의 언어 현실도 아우르는 현실일 테니까.

서울말을 표준어로 한다는 원칙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시효를 다한 규범적 선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테니 우리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언어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상징적인 대립 구도에서 만들어진 남북 언어의 구획은 쉽게 무너진다. '서울말'이라는 말이 빠짐으로써, '서울말' 대 '평양말'의 대립 구도는 와해되고, '서울말'을 대체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말'은 표준어와 문화어를 아우른다. 규범의 유연함이 말의 경계를 무력화할 때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존재 의미도 희미해진다. 유연함은 통합의 필수조건이다.



최경봉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어학회 부회장, 민족어문학회 회장, 국립국어원 국어규범정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어학회 회장, 국어심의회 국어규범분과위원,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민족어의 양면–남북의 언어정책과 어문민족주의』, 『한글연대기』, 『우리말의 탄생–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50년의 역사』,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한글 민주주의』 등이 있다.

세상에 없던 놀라운 박물관,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지난 3월 11일 인천 송도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아래 '문자박물관')에 갔다. 박물관은 2023년 6월에 개관해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Civilization and Writing : A Great Journey)"을 다룬 상설전시와 〈긴 글 주의–문자의 미래는?〉(2023년 6월)을 시작으로 〈문자와 삽화–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를 만나다〉(2023년 12월), 〈파란마음 하얀마음–어린이 마음의 빛깔을 노래하다〉(2024년 4월), 〈올랭피아 오디세이–문자와 여성, 총체적 예술의 거리에 서다〉(2024년 10월), 〈상상해, 귀스타브 도레가 만든 세계〉(2025년 5월), 〈천천히 서둘러라 :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2025년 10월)까지 특별한 기획전시를 선보였다. 연간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면서 최근(3월 15일)에는 3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 신임 관장으로 임명된 김명인 관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박물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었다. 문자의 세계에서 대화가 깊어졌고 만남이 즐거웠다.

진행·정리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부장
사진 **고형욱** 사진작가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실외전경



↑ (2부) 문자, 문화를 만들다

관장에 취임한 소회를 밝혀 달라.

작년 11월 중순에 문자박물관 관장직 제안을 받았고 한동안 망설였다. 문자박물관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아 바로 수락하지 못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니 딱히 마다할 자리가 아니었다. '문자'를 폭넓게 확장해 보면 문학을 전공한 나와 친연성 있는 분야이다. 관장직을 맡겠다 결정하니 다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능력이 되는지 고민이 뒤따랐다. 그러나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었다. 관장으로 취임하고 두 달 동안 바빴다. 먼저 박물관을 파악해야 했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에 집중해야 했다.

집중한 일들은 무엇인가.

문자박물관은 개관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초석을 다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전시와 연구를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문자 연구의 경우 한 부서가 맡아왔다. 초기 문자박물관을 설립하면서 세계의 문자를 연구할 부설 기구로 세계문자연구소(가칭. 아래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 지체됐다. 두 달여 동안 연구소 추진단을 구성했고 예산 확보에 힘썼다. 연구소가 문자 연구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내실 있게 조직을 재정립했고, 문자박물관 특성에 맞는 전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콘텐츠 발굴에 골똘했다.

문자에 특화된 전문 박물관이 생소하다.

프랑스 샹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은 1986년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에 지어졌다. 2009년 중국 하남성 안양시에 설립된 중국문자박물관은 갑골문, 청동기, 문자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3600년 중국 문자의 기원과 발전 역사를 담았다. 우리 문자박물관은 다른 박물관이 시도한 바 없는 전시와 연구의 융합을 통해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문자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고 우리는 문자를 늘 사용하기에 마치 공기처럼 느낀다. 신생 박물관으로서 유물 전시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문자문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문자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각 민족이나 어족(語族)의 고유한 문자 체계는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아내는 최적의 그릇이다. 문자를 잘 보전해야 다양한 문화를 지키고 더 풍요롭게 만



든다. 시대가 변하면서 문자도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이때 소멸 위기 문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문자는 사라진다. 미래에 지구상의 언어가 디지털 코드화돼 영어만 남는다면 문화는 하나로 획일화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문자의 다양성과 가치를 보전해야 문화의 다양성도 지킬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문자나 문자와 관련된 유산을 보전하고 전승시켜야 바람직한 문자문화가 형성된다.

올해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문자박물관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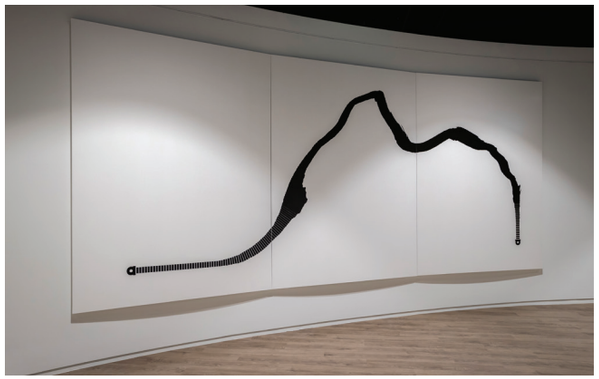
문자 전시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인천 지역에서도 위치상으로 접근성이 좋아 지역민이 자주 찾아왔던 것 같다. 상설전시는 물론 기획전시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누적 관람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 문자박물관은 신생 박물관으로,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문자박물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없던 놀라운 박물관'. 문자박물관은 유물 전시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유물의 개념을 확장해야 했다. 문자 유물은 갑골문부터 금속이나 청동에 새겨진 문자나 파피루스, 종이, 양피지로 만든 고서 형



↑ (프롤로그) 위대한 발명 사진 김용관



↑ (에필로그) 알파에서, 히읗까지.



↑ (1부) 문자, 길을 열다 사진 디자인예감

태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런 유물의 종수가 매우 적다. 무엇보다 주요 유물들은 이미 다른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신생 박물관에서 유물 확보가 어려운 이유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약점이자 강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유물에 의존하지 않는 박물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자 사이에는 문자로 확정되지 않는 수많은 기호가 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것이 바로 문자 이전 인간의 기호이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도 발전했고 기록은 역사가 됐다. 소통과 전승으로 문자를 해석하면 문자박물관의 개념이 확장한다. 문자박물관의 전시나 연구 범위도 훨씬 넓어진다.

재임 기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세상에 없던 놀라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내년쯤 연구소 운영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가 본격화된다. 문자학은 중요성에 비해 소멸 위기 학문에 속한다. 한국은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지만 연구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문자박물관 부설 연구소가 생기면 세계 문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연구를 통해 문자문화가 더 풍성해지고 소멸할 수 있는 문자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환원시키고 다양한 응용 전시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광고의 문장이나 일상의 기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피(copy)나 일상의 기록은 그 시대를 반영한 가치 있는 문장이다. 문자박물관은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다. 이번 5월에 개막하는 특별기획전 〈글씨 상점〉이 그런 맥락을 가진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문자박물관의 개념이 확장되니 전시의 개념도 확장된다.

과거의 박물관은 역사적인 유물이나 국가나 민족이 중시하는 일종의 정전(正傳) 같은 유물을 전시해 대중에게 가르치려고 했다. 현대의 박물관은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관람객의 참여를 중시하고 수용자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이제 박물관은 배움의 공간에서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관람객 스스로가 박물관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에 얽매이지 않고 박물관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자 유물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여기는데 지금도 문자 유물은 계속 생산된다. 문자와 관련된 타자기, 도로 표지판, 광고 포스터 등이 사라져가면서 문자 유물로 남는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물을 찾아 수집한다면 언제든 중요한 전시물이 될 수 있다.

문자박물관의 역할도 전환된 것 같다.

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강연, 학술 세미나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인문학 수요에 비해 인문학적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 지역에서, 문자박물관은 지역의 인문학을 부흥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기 좋은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가꾸며 계속 문턱을 낮추려고 한다.

남북의 언어를 통합·보존하는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생각은?

남북은 한글을 같이 사용하지만 분단 이후 서로 언어 장벽이 생겨났고 언어문화도 이질화됐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글의 언어 다양성이 생긴 것이고 남한 지역의 사투리, 북한 지역의 사투리가 무수히 많다. 남북으로 분화된 언어를 포용하는 사전이 《겨레말큰사전》이다. 사전 편찬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응원한다.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이 미안하고 지금 남북 관계나 남북 교류 사정으로 사전이 완성되지 못해 안타깝다. 나는 미완성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완성은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편찬사업의 마지막 페이지가 잘 닫히리라 믿는다. 사업회가 유연한 자세로 열심히 묵묵히 걸어가길 바란다.



미완성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말씀 감사하다. 끝으로 《겨레말》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문자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문자박물관은 K-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박물관을 지향해 나갈 것이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 문자 전문 박물관이 낯설겠지만, 그 낯섦 자체가 새로움이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자 연구나 문자문화 전반에 관한 거대한 창고 역할을 하고 인류 문화유산의 보고를 만들겠다.



↑ 순서를 건너뛰고 피어나는 벚꽃의 조급함.
그래서인지 벚꽃 아래를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진다.



↑ 마른 꽃이 스스로 말하는 듯하다.
한 생을 끝까지 통과한 자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고.

봄, 철을 앓다

글 · 사진 **강건모** 에세이스트

봄은 이따금 순서를 어기고 불쑥 들이닥친다. 미처 다 지지 못한 매화 곁으로 성미 급한 벚꽃이 와락 밀려든다. 연분홍빛의 무질서한 소동이다. 제멋대로 피어나는 꼴을 보며 철딱서니 없다고 가벼운 눈총을 줘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다급한 개화가 남 일 같지 않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된다. 기어이 순서를 건너뛰고 피어나는 조급함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늦게 철드는 것도 문제라지만, 너무 일찍 철드는 것 또한 반가운 일은 아니다.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읜 나는 철들었다는 소리를 곧잘 들으며 자랐다. 그 덕에 좋았던 것이라곤 어른들에게 조금 덜 혼나는 아이였다는 것뿐이다. 억지로 몸집을 키워 당겨 피워낸 저 봄꽃들처럼 나 역시 내게 허락된 계절을 무리하게 건너뛰었던 셈이다. 일찍 철든 아이의 내면에는 제때 피어나지 못하고 유예된 유년이 화석처럼 굳어 있다. 그 때문인지 나의 사춘기는 서른이 훌쩍 넘어서야 뒤늦은 열병처럼 찾아왔다.

작년 초 독립서점 〈바람작업실〉을 열었다. 서점 한 구석에는 바싹 마른 꽃 한 송이가 놓여 있다. 개업 무렵 누군가 준 것인데, 활짝 피었을 때의 화려함은 휘발되고 물기 마른 갈색 잎맥만 선명하다. 그런데 또 그것대로 깊은 운치가 있다. 사람들은 시든 꽃은 불길하다며 그만 버리라고도 하지만, 나는 그 마



↑ 고양이는 땅 가까이에서 오늘을 버틴다.
봄은 저마다의 높이에서 다르게 온다.

른 얼굴에서 오히려 안도를 느낀다. 저 속에는 제게 허락된 시간을 온전히 다 태워버린 자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다. 생의 쓸쓸한 순간들을 건너뛰지 않고, 제 속도대로 기어이 통과해 낸 자의 서늘한 표정이다.

창밖을 바라보면, 화사한 허공 뒤편에서 또 다른 질서가 묵묵히 돌아간다. 사람들의 시선이 흩날리는 벚꽃으로만 향할 때, 땅과 바짝 붙어 있는 곳에선 다른 층위의 봄이 영근다. 이를테면 고양이들이 그렇다. 사실 〈바람작업실〉 마당은 이 동네 길고양이들의 급식소다. 정말 많은 고양이가 이곳을 다녀가는데, 여럿이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평소 나는 녀석들의 삶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구역의 폭군으로 군림하던 수컷 고양이의 행패 때문이었다. 결국 이웃 캣맘의 조언을 얻어 녀석을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시켰다. 마당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었던 셈이다. 수술 후, 녀석은 이틀 만에 제 발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곤 제 몸에 일어난 변화를, 바뀐 운명을 체감한 듯 아예 이곳의 붙박이가 돼버렸다.
성질이 좀 순해졌다면 더 예뻐해 주련만, 아쉽게도



↑ 땅의 시간을 아는 몸은 서두르지 않는다.
일찍 피어난 것들은 잠깐 눈부시고, 제철을 지킨 것들은 오래 머문다.



↑ 쓰러짐은 꺾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생의 호흡이다.
기꺼이 흔들리며 제철을 앓아내는 청보리처럼.

여전히 까칠하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야생의 고양이가 인간의 입맛에 맞게 얌전히 '철이 드는' 것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이 작은 짐승에게 허공에 날리는 낭만적인 꽃잎 따위가 무어 대수겠는가. 그저 언 몸을 덥혀줄 한 줌의 볕과 오늘을 버티게 할 끼니가 녀석이 감각하는 진짜 봄일 테다. 억지로 철들기를 거부하는 고양이의 웅크린 걸음처럼 삶은 지독하고 성실하게 이어진다.

저만치 들판에는 파종의 때를 귀신같이 아는 늙은 농부들이 있다. 우리말 '철'의 진짜 의미는 저들의 굽은 등에서 나왔다. 흔히 사리에 밝은 상태를 두고 '깨달을 철(哲)'이라는 한자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우리말 '철'에는 이미 그보다 깊은 삶의 통찰이 담겨 있다.
옛사람들은 씨 뿌릴 철과 거둘 철을 제 속도에 맞춰 알아야 비로소 어른으로 쳤다. 제때를 아는 것이 곧 사리를 분별하는 '철이 든다'는 뜻이 된 연유다. 반대로 때에 맞지 않게 구는 이를 '철부지'라 불렀다. 씨 뿌릴 철인지 거둘 철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이다. 바깥의 꽃이 아무리 요란해도 농부들은 억지로 속도를 내지 않는다. 땅의 시간, 자연의 리듬에 맞춰 몸을 굽힐 뿐이다.

일찍 피어난 것들의 화사함은 짧다. 그러나 제철을 온전히 앓아내어 끝까지 견딘 것들의 결은 오래 남는다. 불교에서는 '번뇌가 곧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煩惱卽菩提)'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생이 내어주는 고통을 건너뛰지 않고 온몸으로 앓는 일,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길인지도 모른다. 당신의 계절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만일 생의 어느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또한 당신의 제철일 것이다.



강건모

에세이스트, 문학편집자, 사진가, 독립서점 〈바람작업실〉 운영자. 사진에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문집 『무탈한 하루』를 펴냈고, 단편영화 〈바람작업실〉을 연출했다. 현재 제주에 살며 이야기가 피어나는 삶의 결정적 순간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새로운 통일과 《겨레말큰사전》이 열어갈 미래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통일과 언어의 가치'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의 문화·사회적 이질화,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 달라지고 있다. 물리적 통일보다 남북 관계 전환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반영했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에서 동족·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빼내면서 남과 북은 휴전 중인 교전국 관계로 고착돼 더 이상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성적 통일론이나 감성적 단일국가론보다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통일의 개념이 과거의 민족적 숙원을 넘어서 남북 주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으로 확장돼야 한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협력과 상생을 전제로 한 남북 교류에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통일 이후 언어 이질화 문제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경제적인 남북 교류 사업이다. 동시에 남북 간 직접 합의라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얻은 '작은 통일의 경험'은 어떤 수치로도 단순 환산하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이다.

이에 본지는 남북 교류를 통해 언어 통합을 실현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남북 통일, 언어, 문화 분야 전문가를 필자로 모셨다. 필자들은 '남북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편찬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남북이 통일된 이후 통합사전을 편찬해도 되지 않는지?', '남북에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이 각각 있는데 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해야 하는지?' 등 사업회가 안팎으로 받아야 했던 날이 선 질문에 답했다.

김진환은 "언어는 자격이 아니라 도구"라며 언어를 매개로 가지는 민족의 '공통의 경험'을 말했다. 한민족 구성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말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겨레말큰사전》 발간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 통일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재용은 남북의 진정한 통합어를 담은 도구로서 《겨레말큰사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편찬사업은 남북의 현실 정치에서 독립해 다층적 통합이 가능했다고 봤다. 그는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은 "표준어와 문화어 그리고 기계적 통합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근대 이후 우리말의 어휘를 새롭게 정리하는 역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지순은 "언어는 한 사회의 역사와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며 남북 언어 차이를 살펴보면서 언어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는 "남북한 언어 차이를 살피는 일은 분단으로 인하여 언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하는 것을 넘어, 언어적 공통성을 확인하고 두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분단 이후에도 속담과 순우리말, 일상 속 관용적 표현 등은 여전히 공통의 언어 자산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언어 이해와 연구가 미래의 소통 준비의 토대이자 언어공동체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통찰했다.

《겨레말큰사전》을 '하루라도 빨리' 발간하면 좋은 이유

글 **김진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언어는 자격이 아니라 도구다." 재외동포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의할 때 꼭 쓰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보자. 일본어가 모어(mother tongue)인 재일동포가 뒤늦게 우리말을 배운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우리말을 쓰는 한민족(Korean)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일까? 달리 말해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한민족 구성원'이 되는 것일까? 이처럼 '민족은 같은 언어를 쓰는 집단'이라는 오래된 민족관에 대해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1951~2023)은 이런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우리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배 때문에 일본에 살게 되었고 고국이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구종주국에 남겨졌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문화적 대학살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우리들이 조선인이 아니란 말인가?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다름 아닌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아픔이야말로 우리들이 조선인이라는 증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식민화라는 비극적인 형태로 근대를 경험한 우리, 냉전에 의한 분단체제에 끌려 억지로 갈린 우리, 그 때문에 조선 반도의 남북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이산해 있는 우리. 이런 '우리'야말로 그 공통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같은 조선인인 것이다."[1]

요컨대, 민족의 객관적 징표로서 '공통의 경험'이 '공통의 언어'보다 선차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서

1) 서경식 지음,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돌베개, 2006, 142쪽.

>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통해 한반도 안팎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이 우리말이라는 도구를 매개로 소통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한반도 평화 진전'이라는 당면 과제, 그리고 '통일'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경식은 자신을 포함한 재일조선인이 우리말을 익히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이 조선어를 습득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탈식민지화를 완성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과제—그 으뜸은 민족통일이겠지만—이며, 동시에 그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동포들과 함께하는 지극히 윤리적인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2]

《겨레말큰사전》을 발간하는 이유

이러한 서경식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다 보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단순히 먼 훗날에도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인식에 자연스레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은 우리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의의를 좀 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할까? 여전히 '언어의 공통성'을 민족의 객관적 징표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우리말'(서경식의 표현으로는 '조선어')의 분단 또는 이질화가 안타까워 진행하는 사업 또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그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미 진행된 언어의 분단과 이질화는 어쩔 수 없으니), 심지어는 '통일이 된 이후'에 해도 괜찮은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언어를 민족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자격이 아니라 '공통의 경험'을 한민족 구성원끼리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통해 한반도 안팎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이 우리말이라는 도구를 매개로 소통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한반도 평화 진전'이라는 당면 과제, 그리고 '통일'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겨레말큰사전》 발간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다.

2) 서경식 지음,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56쪽.

> 남과 북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의 차이, 특히 남과 북이 각각 쓰는 각 분야 '전문 용어'의 차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같은 '도구'가 없다면, 소통의 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자칫 하다가는 괜한 오해가 일을 그르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지난 몇 년 동안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잦은 전쟁으로 지극히 위험해졌다. 동아시아에서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 발언(2025년 11월 7일)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남과 북은 아무런 소통 없이 '완벽히' 단절된 채 세계사적 격랑에 따로따로 휩쓸려 들어가는 중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희생되고 있고, 미국은 남한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기 시작했다(2026년 3월 14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을 지지해 왔던 북한과 미국의 동맹인 남한이 어떤 식으로든 대치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비극적이다.

평화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력

평화학에서 말하는 전문적 개념과 이론에 기대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이 나빴던 이들이 더 이상 관계를 악화하지 않고 함께 무사히 사는 길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인정의 기반 위에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이 목표를 향해 무언가를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다. 세계가 갈수록 위험해지는 지금 남과 북 모두에게 '평화공존', 그러니까 한반도의 내륙과 하늘과 인근 바다, 세계 각 지역 등에서 충돌하지 않고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공동의 목표가 또 있을까?

남과 북이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가오지 못하게 벽을 쌓을 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바닷길을 다시 연결하고 그 길을 원활하게 오가면서, 경제 분야 협력이든 학술·보건의료·스포츠·기후 분야 협력이든 간에 뭐라도 해야 한다. 특히 인류 삶의 무대가 기후 위기로도 빠르게 위험해지는 상황이라 기후 분야 남북 협력은 무엇보다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본격화했을 때 남과 북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의 차이, 특히 남과 북이 각각 쓰는 각 분야 '전문 용어'의 차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같은 '도구'가 없다면, 소통의 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괜한 오해가 일을 그르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용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공통 용어까지 모아놓은 사전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면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력'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컨대,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조) 시작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사전 편찬을 위한 남과 북의 협력(25차례 공동회의)만으로도 이미 한반도 평화 진전에 즉각적으로 이바지했고, 앞으로 가시적인 편찬 성과가 쌓이면 쌓일수록 경제, 학술, 보건의료, 스포츠, 기후 등 각 분야의 남북 협력 역시 가속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덧붙여, 우리말을 열심히 익혀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말의 분단', 곧 남과 북의 용어 차이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번갈아 확인해야만 하는 '재외동포'에게도 《겨레말큰사전》이 곁에 있다면 당연히 큰 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왜 예산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통일 이후에 편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이 곁에 있다면 친절하고 자신 있게 말해도 좋다. 이토록 위험한 세계에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는 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이미 많은 공을 세웠고, 앞으로도 남북 평화공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 남과 북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 '하루라도 빨리' 《겨레말큰사전》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진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국민대학교에서 법학과를 나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를 거쳐 국립통일교육원(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로 10년 동안 재직했다. 『북한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 『동북아시아 열국지 1: 북·미 핵공방의 기원과 전개』, 『동북아시아 열국지 2: 팍스 아메리카나의 뒤안길』, 『북한의 선군정치: 김정은의 선택은?』(공저), 『대한민국 평화기행』(공저), 『섬으로 간 전쟁, 섬에서 만난 평화』 등을 썼다.

《겨레말큰사전》, 남북 언어의 역사적 통합

글 **김재용**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



《겨레말큰사전》은 현재 남북의 언어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의 언어가 연유한 역사적 원천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의 언어를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개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제하 조선어학회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을 때부터 가장 중대한 현안이 바로 표준어 제정이었다.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하여 사전의 표제어로 올릴 것인가였다.

표준어의 양면성

당시 상상한 해결책은 비슷한 뜻을 가진 여러 지역의 어휘 중에서 서울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표준어라고 부르면서 타 지역의 것을 모두 방언 혹은 사투리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작고 허름한 집을 서울에서는 오두막이라고 하고 평안도에서는 마가리라고 하였는데, 서울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의해, 오두막은 표준어로 사전에 오르고 마가리는 방언 혹은 사투리로 규정되어 사전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전국의 많은 어휘들이 사전에 오르지 못하거나 혹은 오른다 하더라도 방언이란 딱지를 달게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표준어로 대접받은 어휘들은 더욱 널리 사용하기를 권장한 반면, 사투리 혹은 방언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어의 통일을 통하여 민족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였던 일제하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은 많은 문제점을 내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 표준어 제정을 반대하였다.

언어학자 홍기문은 서울 중산층이 사용하는 언어를 표준어로 선정하는 순간 오랜 세월 민중들이 사용해 온 무수한 토박이말들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표준어 제정을 반대하였다. 시인 백석은 시집『사슴』에서 평양과 평안도에서 널리 사용하는 어휘들을 일부러 시에 끌어들였다. 서울에서 꽤 긴 생활을 하였던 백석이 오두막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마가리라는 말을 시에 사용하였다. 백석은 서울의 언어를 기준으로 표준어를 제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 한설야는 표준어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함흥을 비롯하여 함경도 지역의 언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소설 작품을 창작하였는데《겨레말큰사전》에서 함경도 지역어를 복원하는 데에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독자적인 어문 정리 원칙을 만들고, 비록 조선에 나와 있는 일본인을 위한 사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전을 만든 상황에서 조선어학회가 시급하게 사전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감 또한 조선인의 통일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지역의 언어를 통합하려고 하였던 노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표준어의 제정과 그 기준은 이후 여러 난제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분단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롭게 제기되었을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기보다는 남북의 대결이란 정치적 조건에 의해 굴절되었다.

문화어의 파장

분단 이후 북쪽에서 만들어진 사전 역시 조선어학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1950년대의 소사전을 거쳐 1962년에 6권으로 간행된《조선말사전》(1960-1962)은 표준어와 방언의 위계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다. 남쪽에서 만들어진 사전과 이 점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문화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이전의 유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표준어에서 규정한 서울이란 지역적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어 대신에 문화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와 함경도의 말을 사전에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방언 혹은 사투리로 주변화되었던 어휘들을 문화어의 개념으로 올렸다. 3,000개에 이르는 어휘들이 이 문화어의 개념 덕분에 정식 표제어가 되었다. 오두막을 뜻하는 마가리가 그동안 평안도 사투리로 규정되었는데 이제 문화어로 규정되어 당당하게 사전에 올랐다. 표준어의 개념에서 방언 혹은 사투리로 규정되었던 것을 사전에 올리면서 이들을 문화어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어 규정 이후에 나온 북의 사전에는 마가리와 오두막이 동등한 자격으로 오를 수 있었다.

북에서 문화어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남에서는 표준어, 북에서는 문화어가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남북 어휘의 이질화로 이어졌다. 그동안 유지되었던 서울 혹은 남쪽 중심주의에 대해서 평양 혹은 북쪽 중심주의가 생기게 된 셈이다. 조선어학회의 부정적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표준어라는 개념은 언어상의 남북 통합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이 전통이 깨진 것이다. 그동안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규정 때문에 차별과 무시를 받았던 평안도와 함경도 등지에서 자주 사용되던 말들이 제대로 복원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이러한 작업이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동반하였다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삼팔선 이남 지역에서 표준어 규정 때문에 차별받고 주변화되었던 어휘들이 살리는 작업까지 자극하였을 것이고 이는 한반도 전체의 언어적 결락을 제대로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 중심주의에 대한 대타적 의식에 기반을 두었던 것이라 매우 한정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남북의 어휘 이질화로 이어졌다.

《겨레말큰사전》은 통합어의 미래

차별당하고 외면받았던 지역어들을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서울에 맞선 평양의 언어를 살린다는 뜻이 더욱 강하였던 문화어의 등장으로 남북의 언어 상황이 한층 복잡해졌지만 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 남북에서 기존에 금지했던 근대 작가들을 해금할 정도로 한반도 문화의 장에서도 탈냉전의 기운이 강하게 불었다.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남쪽에서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북한어 편입이었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를 걱정하면서 언어적 통합을 상상하던 이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존 남북에서 출판된 사전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북한어를 편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합 의지의 산물이다. 남쪽 사전에는 없지만 북쪽의 사전에 있는 어휘 중 가치 있는 것들을 북한어의 이름으로 사전에 올리고 이를 통합사전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로 명기된 어휘들이 모두 이 시기에 수록된 것들인데 대략 7만 개에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는 많은 이들이 북한어로 되어 있는 어휘들이 분단 이후 북한에서 사용된 어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 7만 개에 달하는 이 북한어 중에는 해방 이후 북에서 만들어져 사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대 이후 한반도에서 사용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전에 올라가 있지 못하다가 북에서 편찬한 사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다. 가령 충청도 출신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던 이기영이 월북 이후에도 많은 작품을 썼는데 남쪽에서는 이기영이 월북 작가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나오는 어휘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면, 북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의 소설에 나오는 어휘 중 사전에 수록되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여 표제어로 올렸다. 북의 사전에 올려져 있고 남의 사전에는 없는 이기영 작품의 새로운 어휘들은 북한어가 아니고 충청도 지역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은 한반도에 부는 탈냉전의 바람을 타고 좋은 뜻의 통합으로 북의 사전에만 있는 7만 개의 어휘를 남쪽의 사전에 올리는 성과를 낳았지만 실제로는 남북 언어 상황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남북 언어의 이러한 복잡한 정황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면서 진정한 통합어를 상상하려고 한 것이 바로 《겨레말큰사전》이다. 《겨레말큰사전》은 기존의 남북 사전에서 통합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20만 개의 어휘를 고르고 이를 합동으로 뜻풀이하였다. 다음으로는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개념으로 인하여 억압되었던 지역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이를 동등한 자격으로 올림말로 올리는 것이다. 10만 개의 새어휘를 올리는 성과를 낳은 이 작업은 근대 이후의 많은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작업도 하여야 하고 또한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구비되는 어휘들을 발굴·정돈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근대 이후 처음 하는 통합어 작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진정 통합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을 통하여 비로소 표준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문화어의 편중을 극복할 수 있으며 기계적 통합어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층적 남북 통합의 가능성



↑ 2007년 10월, 제11차 공동회의(중국 선양)

《겨레말큰사전》이 남북 통합에서 갖는 의미 중 음미해야 할 대목은 남북의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독립하여 작업했다는 점이다. 남북의 통합에서 정치적 통일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모든 것을 그것에 귀속시키거나 환원시키는 것 또한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현실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남북의 통합을 상상하는 것은 작업의 편의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통합에 이르는 작은 길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편찬위원들이 《겨레말큰사전》을 시작할 때 합의한 것은 이 사전이 규범 사전이 아니고 유산 사전이라는 점이다. 물론 사전을 만드는 실무 차원에서는 편찬 작업을 위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규범이 필요하지만, 만약 《겨레말큰사전》을 규범 사전이라고 했으면 이 사전 작업은 남북 현실 정치의 압력으로 오래전에 중단되었을 것이다. '자음과 모음을 어떤 순으로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와 같은 사전 편찬 실무 차원의 규범이 아니라 규범 사전이었다면,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한다는 한층 강화된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것이고 필경 남북의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남북의 사전에서 통합어로서 의미가 있는 어휘 20만 개를 고를 때 해방 이후 남북의 정치적 제도에서 빚어진 어휘들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역시 통합을 위한 현명한 일이었다. 만약 이질화를 극복한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앞세웠다면 그동안 《겨레말큰사전》이 이룩한 업적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겨레말큰사전》은 표준어와 문화어 그리고 기계적 통합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근대 이후 우리말의 어휘를 새롭게 정리하는 역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어떤 정치적 향방과도 독립된 것으로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의 현실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독자성을 견지할 수 있었기에 다층적 통합에서 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재용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 문학평론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이다.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한국 근대민족문학사』, 『협력과 저항』, 『세계문학으로서의 아시아 문학』, 『풍화와 기억』 등을 썼다.

언어의 분단에서, 언어공동체를 생각하다

글 **이지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분단과 함께 달라진 언어의 길

언어는 한 사회의 역사와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남북한의 물리적 분단은 체제와 제도뿐만 아니라 언어와 가치관의 분단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며 분단의 맥락은 더욱 심화되었다. 남북한은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화해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분단의 장벽은 여전히 강고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관계 회복의 과제는 더욱 복잡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은 1960년대에 '평양문화어'를 정립하며 남한의 표준어와 구별되는 독자적 언어 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에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을 '괴뢰'라 지칭하며 남한의 문화, 특히 남한식 말투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언어 단절을 제도화하였다.

남북한의 언어는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지칭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북한의 공식 문건이나 언론에서 발화되는 폭력적이면서 저급한 수사들, 조롱과 욕설은 자못 당황스럽다. 외교적,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된 이 같은 발화 형태는 번역이 필요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언어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언어공동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언어의 경계, 개념의 분단

남북한의 언어는 기본적인 문법은 동일해도 분단이 심화되면서 어휘, 표현 방식, 맞춤법, 어조를 비롯하여 언어정책과 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분단 이전에는 함께 사용하고 뜻이 통하던 단어라 할지라도 공간이 분리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포된 의미가 변화했다. 같은 대상인데 부르는 말이 달라졌다. 이 같은 개념의 분단은 일상어부터 추상적인 개념어까지 망라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주로 사용하면서 남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단어로 친구의 동의어인 '동무'를 들 수 있다. 평화, 전쟁, 민족 등에 대한 남북한 입장 차이에서 개념의 분단은 잘 드러난다. '동무'처럼 어느 한쪽이 선점한 단어는 다른 한쪽의 사용 기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개념의 쟁투는 해방기부터 나타났다.

분단 이전에 '민주'와 '인민'은 보편적인 근대 정치 용어였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을 선점하면서, 남한에서 '인민'은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단어로 굳어졌다. '민주'는 민주개혁, 민주기지, 민주조선 등 북한이 해방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넣기까지 하였으나 현재는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냉전 구도 하에서 민주와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진영과 대립하는, 남한 등 특정 체제를 상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기에 '자유'는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였다. 남한에서 '자유'가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이라면, 북한에서는 사회와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로 규정되고 있어 사실상 다른 개념이 되었다. 북한에서 '자유주의적 현상' 또는 '자유주의를 한다'라는 말은 규율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의미로, 곧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래어로 보는 남북한 언어의 거리

남북한 각자가 맺은 외교관계의 차이는 외래어 사용에서도 차이를 가져왔다. 해방 전에는 영어, 독일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외래어가 섞여 있었다. 분단 이후 남한의 외래어는 주로 영어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북한은 러시아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예컨대 남한의 영어식 외래어인 백신, 트랙터, 하키, 소시지, 그룹, 비디오 등은 북한에서 왁찐, 뜨락또르, 호케이, 꼴바싸, 그루빠, 비데오 등 러시아어 기반의 외래어로 사용되었다.

새로운 문명과 기술을 반영한 신어의 경우, 남한은 서버, 데이터, 디지털,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북한은 봉사기, 자료/수값, 수자식, 구름계산 등으로 번안해 사용한다. 북한의 경우 콤퓨터, 프로그람 등을 그대로 쓰는 사례도 빈번하나 대체로 외래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콜라겐, 알고리즘처럼 순화어가 마땅치 않은 경우엔 그대로 사용하며 머리비누, 헹굼물비누 대신에 샴푸, 린스로 정착한 경우도 있다. 한편, 남북한 모두 동일하게 '업로드/다운로드'를 '올려보내기/내려받기'로 순화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소세지, 햄, 꼴바싸로 불리는 육가공품. 출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외국문출판사, 2019, p.94.



↑ 락연식료가공공장의 '에스키모' 제품들. *Foreign Trade of the DPRK*, no. 1, Pyongyang: the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2019, p.25.



↑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Foreign Trade of the DPRK*, no. 1, Pyongyang: the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2023, p.14.



↑ 룡성식료품가공공장의 '빠다' 제품. *Foreign Trade of the DPRK*, no. 1, Pyongyang: the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2025, p.29.



↑ 룡악산비누공장의 샴푸와 린스. *Foreign Trade of the DPRK*, no. 4, Pyongyang: the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2025, p.12.

최근에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공인되지 않은 외래어와 '일본말찌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에서는 바께쯔(양동이), 세타(스웨터), 고뿌(컵), 레루(레일), 빠다(버터) 등 일본식 발음이 고착되어 있다. 한편으로 영어 기반 외래어가 점차 확산되면서 러시아어 기반이었던 '모터찌클'은 '오토바이', '꼴바싸'는 '햄'과 '소세지'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얼음보숭이'는 '에스키모'라는 러시아 상표 이름으로 불렸으나 이제는 '아이스크림'이 일반적이다.

북한 언어생활 속 우리말 유산

북한의 문화어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표준화되어 있지만, 일상에서는 전통적인 북부 방언과 토박이말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특히 시나 소설 등 문학에 기록되는 어휘들은 지역 방언부터 순우리말, 시대가 변하면서 북한에서 고유하게 형성된 북한말 등이 망라되어 있어 한반도 언어문화의 주요 자산으로 주목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말대꾸는 까박(평북·함남), 손아귀는 손탁(평북), 서랍은 빼람(평안·황해), 굳은살은 썩살(함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북 지역 방언 등을 포함하여 북한어를 사전으로 종합한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북한 문학에는 바스레기(바지락), 혼쌀(혼쭐), 엎음갚음(상부상조), 꼭자(매우 고지식한 사람), 등탈(뒤탈), 뚝박새(융통성 없고 무뚝뚝한 사람) 등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북한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겨레말큰사전》에서 검색해야 정확한 뜻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사전을 이용하지 않아도 독자는 문맥과 어감, 조어 방식을 통해 대략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남북한이 언어공동체로서 기본적인 언어 구조, 어휘 형성 방식, 비유 습관, 정서적 어감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갖는 이점이다.

한편으로 북한 문학에는 풋낯(겨우 얼굴만 아는 서먹한 사이), 오달진 성미(빈틈없고 꼼꼼한 성격), 꿈만한(막막한 상황), 푸접(사람 사이의 붙임성) 등 남한 사전에 등재된 순우리말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더 나아가 속담이나 비유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유하여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닭알에서 황소가 나올 리 만무"라고 말하며,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을 "삼년묵은 물박달같은"이라고 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애매한 두꺼비"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살아있는 '입말'을 반영하여 생활의 감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면서, 남북한 공동의 문화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차이를 아는 동시에 공통점을 확대하면, 비록 오랜 시간을 분단된 채 살아왔어도 언어공동체였던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어질 언어공동체

남북한 언어 차이를 살피는 일은 단지 분단으로 인하여 언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하는 것을 넘어, 언어적 공통성을 확인하고 두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랜 분단으로 남북한은 같은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해 왔고, 서로 처음 듣는 단어가 있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표현 방식이 달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번역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에도 속담과 순우리말, 일상 속 관용적 표현 등은 여전히 공통의 언어 자산으로 남아 있다. 차이를 아는 동시에 공통점을 확대하면, 비록 오랜 시간을 분단된 채 살아왔어도 언어공동체였던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직접 만나거나 교류가 확대될 경우, 언어 차이는 실제 의사소통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의 표현 방식과 의미 체계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소통의 어려움을 줄이고 교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언어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노력이자, 남북한 언어 차이를 연구하는 동시에 공통의 언어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기적으로 어느 한쪽의 언어 규범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생활과 언어 경험을 존중하며 공통의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언어 이해와 연구는 미래의 소통을 준비하는 토대이자, 언어공동체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지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 문학예술과 문화정치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 시대의 미디어 대중 교양, 뉴미디어 대외 선전,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공저),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공저),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공저),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공저) 등을 썼다.

《로동신문》에 등장하는 북녘말들

글 **박소혜**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디지털 시대. 인터넷 가상공간이 물질 현실 세계를 압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종이 신문을 볼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지금은 인터넷 검색을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방식마저 바꾸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다. 온갖 종류의 정보와 소식들이 온라인 뉴스와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재생산되면서, 강력한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던 기존 언론은 기능과 역할이 달라진 지 오래다. 당연히 오프라인의 종이 신문보다는 온라인의 뉴스 보도가 훨씬 더 많이 유통되고 소비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종이 신문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화 충격 혹은 서로 다른 체제의 괴리와 장벽

북한에서 종이 신문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했을 때 유일무이한 대표 선수가 바로 《로동신문》이다. 이 《로동신문》은 우리가 《노동신문》이라고 읽고, 때로는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노동'이 아니라 '로동'으로 읽고 쓰는 게 맞다. 《노동신문》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우리의 잣대로 한번 걸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 방식의 맞춤법을 《로동신문》이라는 매체명에서부터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출발선이다.

그렇다면 《로동신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는 지금도 《로동신문》을 정말로 보려면 《로동신문》을 갖고 있는 국가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 등에 직접 가야 한다. 《로동신문》이 놓여있던 위치가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특수 자료였을 때는 일반인에게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 자리를 옮긴 《로동신문》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익숙하지 않은 문체, 서체, 문법, 그런 걸 빼면 같은 한글이니 그리 못 읽을 건 아니다.

근데 《로동신문》에는 대체 뭐가 들었기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걸까? 그건 필자가 《로동신문》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 같은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로동신문》을 보고 나니 북한에 대한 이해보다는 서로 다른 체제의 괴리와 장벽이 먼저 다가왔다고도 할 수 있겠다. 《로동신문》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찬양보다도 남한 정부를 향한 거친 언사들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공식 매체에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를테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레미 터지는 소리를 쥐치였다." 같은 문장이다.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인 것 같지만 《로동신문》에서는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상

> "자본주의는 경제가 중심이므로 상품을 홍보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정치가 중심이므로 지도자를 홍보한다.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광고'이고, 지도자를 홍보하는 것은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

용구에 해당한다. 또 기사 제목으로 이런 것들도 있다. "달을 보고 짖어대는 개소리", "산송장의 잠꼬대", "수치와 창피도 모르는 얼간이짓", "무식쟁이로파의 망신거리"와 같은 표현이 버젓이 등장한다. 특히 인용부호를 써가면서 "그 무슨 'ㅇㅇ'"라고 할 때는 삿대질이라도 하는 모습과 흥분한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매우 직설적이고 적나라하다. 대체로 동물에 비유해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되는 면이 있다.

전면광고가 없어도 최고지도자 선전 선동은 있다

그다음으로 두드러지는 건 《로동신문》에는 광고가 없다는 점이다. 마치 이건 《로동신문》의 특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광고에 너무나 익숙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뇌는 매일 보는 익숙한 것은 주목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뭔가 다른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 신문에는 광고가 가득하다는 걸 잠시 잊어버린 채, 《로동신문》에 광고가 없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가득한 것을 기이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도 체제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본주의는 경제가 중심이므로 상품을 홍보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정치가 중심이므로 지도자를 홍보한다.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광고'이고, 지도자를 홍보하는 것은 '선전 선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의 신문은 전면광고를 싣는다면, 《로동신문》은 최고지도자를 1면에 전진 배치한다. 우리가 《로동신문》에서 지도자의 찬양 기사와 사진에 괴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북한은 자본주의 신문에 두드러지는 전면광고가 생경하게 느껴질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러한 생경함은 대개 비난이나 멸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로동신문》은 북한 최고지도자를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일까? 주민들이 보는 신문인 만큼 최고지도자가 인민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우리말로 톱기사(머리기사)가 된다. 북한에서는 '현지지도'라고 표현한다.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공장, 학교, 군부대 등을 찾아가 현장의 사정이나 형편을 알아보는 '료해'를 하고 인민들을 만나 지도를 하는 등의 공개적인 통치 활동이다. 현지지도에서 지도자는 칭찬할 수도 있고 혼낼

> 적대적 차단의 빗장을 하나씩 풀다 보면 소통과 대화의 길도 조금씩 열리게 되지 않을까? 차단은 호기심을 부를 수 있지만 해제는 직시를 통해 정면 돌파의 해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수도 있다. 이때 자주 쓰이는 북녘말이 있다. 바로 '꽝꽝'과 '망탕'이다. 칭찬에는 '꽝꽝', 비난에는 '망탕'이 쓰인다. 예를 들면 이렇다. 청년동맹을 칭찬하면서 "젊은 주력부대가 '꽝꽝' 울리는 진격의 나팔소리, 북소리가 강산을 진감"한다든가, 농장에 대해 "영양가 높은 푸른먹이를 '꽝꽝' 생산하고 있는 이 시설의 경제적 효과성은 대단히 컸다."라든가, 공장 생산능력이 늘어서 "학습장이 '꽝꽝' 생산되고" 등과 같이 쓰인다. '꽝꽝'은 북한 사전에서 "어떤 일이 기세좋게 진행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반면 지도자가 지적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라고 하여 '망탕' 써버린다면", "잘 썩지도 않은 거름을 '망탕' 포전에 내여", "과학적리치에도 맞지 않게 주관적 의사를 '망탕' 내리먹이는 현상들"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망탕'으로 강조한다. '망탕'은 북한 사전에서 "되는대로 마구"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있다. "청소한 공화국의 힘으로 미제에 맞서", "건군의 첫 기슭에서… 청소한 우리 군대", "청소한 신생조선을 이끄시여" 등에서처럼, 정권 초기 6·25전쟁 당시의 북한을 스스로가 '청소한 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청소(靑少)하다"는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 "력사가 짧고 경험이 어리다"라는 의미이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뜻의 형용사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북한은 마치 자신의 '청소년' 시기를 격려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쓴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

《로동신문》 공개 얘기 하나 더. 왜 《로동신문》은 종이 신문으로만 봐야 할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로동신문》은 온라인판도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다. 또한 지금 볼 수 있는 《로동신문》은 아침마다 실시간 배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나버린 신문을 이제야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차까지 있다. 통일부의 북한 자료 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차차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로동신문》을 인터넷으로 접속하려다가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접근했다는 차단 표시가 뜨거나,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적대적 차단의 빗장을 하나씩 풀다 보면 소통과 대화의 길도 조금씩 열리게 되지 않을까? 차단은 호기심을 부를 수 있지만 해제는 직시를 통해 정면 돌파의 해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테다.

2006년 금강산에서 남북언론인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다. 제1회 개최가 마지막이 되었다. 당시 만찬 자리에서 남북의 기자들이 서로에게 질문했다. 북측 기자는 "우린 범죄 기사는 안 쓴다. 미담 위주로 쓰는 게 주민들의 교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측은 북측의 어떤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사람 사는 이야기,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만나자."라고 했지만, 기약 없는 만남인 걸 모르지 않았을 그 북측 기자는 '사람 사는 이야기' 잘 쓰고 있는 걸까, 문득 궁금하다.

머지않아 《로동신문》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로동신문》은 여러 신문 중 그저 하나가 될 것이다. 차이조차도 자연스럽게 묻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도 언젠가는 한국의 신문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좋겠다. 지금은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달라도 뭐가 다른지 알려야 할 게 아닌가 싶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테니 말이다.





박소혜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광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강사,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겸임교수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오호츠크해기단/오호쯔크해기단

글 최성규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오호츠크해기단'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단어이다. 비록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일기예보에 이따금 나오는 말이므로, 이 말이 사람들에게 그리 낯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북녘에서는 '오호쯔크해기단'이라고 하니 남북 사이에 'ㅊ'과 'ㅉ'의 표기 차이가 있으나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 글에서는 표기보다 뜻풀이의 차이를 짚어 보려 한다. 남녘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사전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 (남)	오호츠크해^기단(Okhotsk海氣團) 『지구』 오호츠크해로부터 쿠릴 열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성 한랭 기단. 6~7월에 발생하며 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사이에 형성되는 장마 전선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접어들게 된다.
《조선말대사전》 (북)	오호쯔크해기단(Oxotck㊣-) [명] 《기상》 오호쯔크해와 깜챠뜨까 및 알류산렬도의 남쪽바다에서 생기는 공기떼. 이 공기떼가 우리 나라 조선동해만 북쪽지대에 흘러들 때 랭해현상이 나타난다.

남북의 사전은 모두 이 기단의 지역 범위를 첫 문장으로 넣었다. 오호츠크해(오호쯔크해)는 공통으로 들어있고, 쿠릴 열도와 깜챠뜨까(캄차카)는 각각 오호츠크해의 남동쪽과 북동쪽 경계를 이루는 지명이므로, 결국 오호츠크해와 그 주변으로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알류산렬도(알류샨 열도)의 남쪽 바다는 오호츠크해를 넘어서 북태평양의 북쪽 바다를 가리키게 되므로, 《조선말대사전》에서 가리키는 범위가 더 넓기는 하다.[1)]

그다음 문장에서는 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기상 현상을 설명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장마'를 이야기했는데, 《조선말대사전》에는 '랭해(냉해)'가 들어있다. 반대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냉해가 없고 《조선말대사전》에는 장마가 없다. 남녘의 사전과 북녘의 사전이 대표로 제시한 기상 현상이 서로 다르다.

1) 알류샨 열도 전체는 미국 알래스카에서부터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늘어서 있으므로 그 전체의 남쪽으로 이해한다면 대단히 넓은 범위가 된다.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가 북태평양 북부의 드넓은 지역을 두루 포함하여 가리키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남북을 아우르는 사전을 고민하는 편찬자로서는 그저 넘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된다.

백과사전은 전문용어에 대해 국어사전보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남녘 《두산백과》의 '오호츠크해기단'과 북녘 《조선대백과사전》의 '오호쯔크해공기떼'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지면 관계상 일부를 줄이고(남녘 자료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냉해 및 장마와 관련된 곳에 밑줄을 쳐 보이면 아래와 같다.

사전	용어	뜻풀이
《두산백과》 (남)	오호츠크해 기단	5월과 6월에 걸쳐 아직 추위가 풀리지 않은 한랭한 오호츠크해 위에서 발달한 해양성 기단. **특징** 오호츠크해 기단은 오호츠크해의 낮은 해수의 온도와 제트기류의 하강 등의 발원지의 특성에 따라 냉량습윤한 것이 특색이나, 오호츠크해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오호츠크해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과 접하면 그 경계에 **장마**전선이 형성된다. 초여름 시베리아 기단이 약화되면서 이 기단의 세력은 확장되어 동해안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냉습한 기온**을 가지고 오며 **장마**를 몰고 오기도 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에 밀려 우리나라에는 다가오지 못한다.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 ……(생략)…… 오호츠크해 기단과 **장마** ……(생략)……
《조선대백과사전》 (북)	오호쯔크해 공기떼	오호쯔크해 부근에서 생기는 해양성중위도공기떼. 이 공기떼는 아래층에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것이 특징이다. …… (중간 생략)…… 이 공기떼가 우리 나라쪽으로 그 세력을 뻗치는 기간에 동해안북부지방들에서는 안개가 끼거나 이슬비가 내리며 기온이 낮은 **랭한형날씨**가 계속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동해안북부지방의 **랭한형날씨**는 오호쯔크해공기떼의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오호쯔크해공기떼의 세기는 해에 따라 다르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동해안지방들에서의 **랭해**의 세기도 다르다. 대체로 대기순환상태가 례년과 다르고 오호쯔크해의 바닷물온도가 특별히 낮은 해에 오호쯔크해 공기떼가 더욱 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 (이하 생략)……

남녘의 백과사전에서는 '장마'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장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이것을 따로 다루는 하위 항목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냉해'라는 단어는 없고 그 대신 '냉습한 기온'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장마에 비하면 관련된 설명의 분량이 훨씬 적다. 반면에, 북녘 백과사전에서는 '랭해(냉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기온이 낮다는 점 외에도 안개나 이슬비 등등 부연 설명이 덧붙어 있다. 반면 '장마'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국어사전에서 보았던 양상과 마찬가지이다.

범위를 더 넓혀서, 《두산백과》에서 '오호츠크해고기압'을 찾으면 '냉해'가 언급되기는 한다. 《조선대백과사전》에

서도 '오호쯔크해고기압'을 찾으면 '장마'가 나타난다. 따라서 남녘에서나 북녘에서나 장마와 냉해 모두가 이 기단과 관련되어 언급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현상의 비중이나 영향력은 남북 간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냉해에 관해서는 상식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서늘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녘에서는 한반도 북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나 문제들을 덜 겪다 보니 그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다. 북녘《조선대백과사전》의 '랭해' 항목을 찾으면 이 현상이 '동해안 북부지방'과 '북부 내륙지방'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남녘《두산백과》의 '냉해' 항목에서는 냉해가 어느 지역에서 두드러진다는 설명이 없다. 남녘《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냉해' 항목에서는 '고위도지방과 산간지대'에서 많다고 하여 일반론의 성격을 띤 지리 정보가 조금 더 들어있을 뿐이다. 남녘 백과사전에서는 냉해를 어느 특정 지역권의 일로 뚜렷이 짚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장마에 관해서도 살펴보자. 북녘《조선대백과사전》에서도 장마는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있고, "우리 나라는 7~8월이 장마철"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니 남녘의 상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2] 다만《조선대백과사전》의 '장마'에는 '오호쯔크해기단(~공기떼, ~고기압)'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장마 전선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의 계절풍이나 습기의 이동, 저기압성 요란(불안정) 등을 장마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남녘《두산백과》의 '장마' 항목에서도 "……이 전선을 따라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날씨는 6월 말경부터 7월 말까지 흐리게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 장마와 저기압이 관련된다는 점은 남북 공통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장마와 '오호츠크해(오호쯔크해) 기단'의 관련 정도에 주목한다면 남북의 견해차가 있어 보인다.

이제까지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결국 요점은 '오호츠크해(오호쯔크해)기단'의 뜻풀이를 국어사전의 양식에 맞게 다듬어 넣는 것이다. 남녘 국어사전의 장마와 북녘 국어사전의 냉해 모두가 타당성을 지녔다고 인정하고, 둘을 아울러 풀이하는 쪽이 무난할 것이다. 그렇게 뜻풀이를 써 보면 다음과 같다.

오호츠크해기단 ([로]Охотск/Ohotsk海氣團) [명]《기상》
오호츠크해에서 발달하는 차고 습도가 높은 기단. 6~7월에 발달하는데, 여름철 우리 나라에 랭해와(냉해와) 장마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오호쯔크해기단〉이라고도 한다.

2) 《조선대백과사전》의 '장마'에서는 8월 하순의 장마를 꽤 비중 있게 다루었다. 남녘에서는 가을장마라고 부르는 것이나 그리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장마 현상 또한 남북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있는 셈이다.

오호쯔크해기단 ([로]Охотск/Ohotsk海氣團) [명]《기상》
오호쯔크해기단에서 발달하는 차고 습도가 높은 기단. 6~7월에 발달하는데, 여름철 우리 나라에 랭해와(냉해와) 장마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오호츠크해기단〉이라고도 한다.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 덧붙여 둔다. 근래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장마의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는 학계의 논의가 있다. 냉해 또한 예전과 달리 봐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 북녘의 기후에도 변화가 나타났을 텐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언젠가 남북의 학자들이 서로 만나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으며, 한반도 전체의 근래 현상까지 아우른 더욱 정확한 뜻풀이에 이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최성규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2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2부 선임편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모롱지에서 건져 올린 말들

글 정동철 시인

어느 땐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다. 아마 무슨 문인들 모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자리에서 만화영화 〈뽀로로〉 얘기가 나왔다. 이 만화영화가 전 세계 어린애들의 아침을 깨워준단다. 참 잘 만들어진 모양이다. 다들, 우리 만화가 드디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화의 첨병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때 누군가, 그런데 '뽀로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다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시원스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뽀로로'라는 말은 의태어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모롱지'라는 동네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굳이 의미를 얘기하자면 '어린아이가 종종걸음으로 부지런히 걷는 모양'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 '뽀로롱'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날 이후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 스무 살이 넘도록 살아온 모롱지에서 쓰던 말들이 기억날 때마다 시작 노트에 적었다. 명색이 시를 쓴다는 자가 태어나 살아온 동네 말을, 그 말의 아름다움을 잊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더 기억이 망가지기 전에 기록하고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내놓은 시집이 『모롱지 설화』(걷는 사람, 2023)이다.

> 아 누가 웃동네 술도가 좀 뽀로로 허니 댕겨와 저 잡녀러 새깽이덜은
> 왜 잔치 음식을 두여쌌냐? 워따 저 자발시런 늠덜 보소 다리몽생이를
> 작신 분질러 버린다잉
>
> –「팥니, 모롱지 설화 5」 부분

조앙쇠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 할아버지가 있었다. 허리가 'ㄱ' 형태로 굽어서 늘 지팡이를 짚고 종종걸음으로 마을 안팎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조앙에서 낳아서 조앙쇠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조앙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부엌을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조왕'이 맞는 듯하다. 조왕신은 부엌을 지키는 토속 신이다. 조앙쇠 할아버지네 할머니는 '조앙니'라고 불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리 동네엔 '덕쇠'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집 할머니를 '덕니'라고 불렀다. 곱동쇠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집 할머니는 '곱동니'라고 불렀다.

「모롱지 설화 1」에 나오는 '소망쇠' 할아버지의 혼인 얘기가 나온다. '소망' 또는 '또망'은 화장실을 이르는 말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소망쇠 할아버지는 그럼 또망에서 낳았나? 이 말은 차마 할머니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흔히 택호라고 해서 시집오기 전 고향을 동네 아짐들의 별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의 큰어머니는 '배들이 덕'이라고 불렀다. 정읍시 이평면의 옛적 이름이 '배들'이었는데 배나무가 많은 동네라고 했다. '징기 덕'이나 '맹기 덕'이라고 불린 분도 있었는데 징기는 김제시의 옛 이름이고 맹기는 만경의 옛 이름이다. 모롱지에서는 이런 별호들이 섞여서 사용되었다.

> 영락읍써 닥알을 두여먹는 늠이 있당게로 안 그러먼 매칠째 달구새끼덜이 알을 안 놓을 수가 업당게로
> 호게나 히서 다른 디다 놓아놨나 내가 대밭 그늘 미티도 다 찾아봤당게로 틀림없이 머신가가 있어
>
> 조앙쇠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조앙 문트매기로 닭기퉁가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침이슬
> 내린 풀숲을 헤치며 그놈이 다가오고 있었다
>
> –「그놈 똥구녁, 모롱지 설화 11」 부분

안도현 시인은 경상북도에는 '니껴체'라고 하는 독특한 말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곤 했다. '아침 잡샀니껴?', '장에 가시니더'가 그 예다.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라우체'라는 말뽄도 있다. '진지 자셨어라우?', '지양 지냈어라우'가 그 예라면 모롱지에서는 '게로체'[1]가 있었다. 앞에서 제시한 「모롱지 설화 11」에서도 게로체가 나오지만 이 말뽄이 전주시 외곽 황방산 밑의 모롱지에서만 통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주 지역 전체에서 사용되었던 것인지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미 이 지역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그 말들이 잊히고 있기 때문이다.

> 얘! 이늠아! 구랭이는 업이여
> 업을 잡아서 묵으먼 벌받는 거여
> 묵을 게 읎다고 업을 잡아 묵냐
> 성주신이 노하면 집안이 망하는 뱁여
> 아 그라믄 안 된당게로
> 당최 그러들 말랑게로
>
> –「먹구렁이 업보, 모롱지 설화 21」 부분

1)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모롱지에는 지명에도 독특한 어휘들이 많았다. 모롱지라는 말 자체도 참 어여쁜 말이다. 모롱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그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와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마도 '모롱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동네는 아닌 게 아니라 산모퉁이를 돌아가며 마을이 자리를 잡았다. '꽃찰메'라는 곳도 그러하다. 앞산 너머 작은 분지를 그렇게 불렀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서 산 자체가 커다란 꽃밭이 되던 곳이었다. 어른들은 늘 "꽃찰메로 구름 들어가는 것이 큰비 오것다."라든가 "꽃찰메 똥구먹에 해 걸릴 때까지 자빠져 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다. 나중에 '메'가 산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 꽃이 차오르는 메라는 뜻이구나!" 하고 탄복했다.

뜻을 알 만한 이름들도 있었지만 전혀 짐작이 안 가는 이름들도 있다. 모롱지 윗동네 이름이 '성낭골'이었다. 모롱지가 열두 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이라면 성낭골은 삼십여 가구가 살고 있어 제법 큰 마을에 속했다. 작은 점빵이 있어 막걸리도 팔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도 팔았다. 밭일하던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는 자주 막걸리를 받으러 갔다.[2] 성낭골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어원은 신통치 않다. 성안골이 어원이란 얘기도 있고, 석난골에서 온 말이란 얘기, 성황당이 있던 골짝이란 얘기도 있지만, 모롱지가 소재한 인근은 전주 부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돌도 많이 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성황당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고향이 성낭골 너머 '버드랑죽'인 이병초 시인은 '성낭'이 '대장간'의 옛말이라고 하며 대장간이 있던 골짝이라는 뜻일 거라고 얘기해줬다. 모롱지 앞을 흐르는 삼천[3] 옆 큰 산 아래 물가를 '뱀장소'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소'는 한자어로 '못 소(沼)'가 아닐까 추정해 볼 뿐이다. 그곳에 이무기가 산다거나 물귀신이 살고 있어 뱀장소에서 시엄을 치면 머리끄댕이를 잡아댕긴다고 절대로 그곳에서 미역을 감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뱀장소에서는 사람이 가끔 빠져 죽어서 두어 해에 한 번씩은 당골들이 와서 넋을 건지는 굿을 하곤 했다.

> 굿소리를 하며 당골네는 흰 광목베를 풀어 얼음이 채 녹지 않은 물속으로 밥중발을 흘려 보냈다
>
> 사램이 물에 빠져 죽으먼 넋도 빠져서 못 나온디야 그리서 물속으서 가매니 지다리다가 담 사램얼 물에다 빠쳐놓고 넋을 잡아 당군 담에나 나올 수 있댜 안 그러대? 물구신이라고? 물구신이 물속으서 잡아댕기면 오강단지에도 빠져 죽는다고 안 허대? 그리서 굿을 히서 넋을 건져주는 거시여 안 그러믄 인지 바라 저 자리에서 또 사램이 빠져죽는다는 것이여 저시기 저 광목베가 넋베라는 거셔 넋베로 싼 밥중발에 멀크락이 들어오면 넋이 건져진 것이여
>
> –「석찬이 형, 모롱지 설화 87」 부분

2) 막걸리를 '사러 간다'고 하지 않고 '받으러 간다'라고 표현했다.
3) 개천을 '삼천'이라 불렀다.

『모롱지 설화』를 출간하고 나서 원성을 많이 들었다. 전라도말[4]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시'라나? 시 끝에 주석을 붙이든지 아니면 시집 끝에 낱말 풀이를 해달라고 한 시인들이 몇 분 있었다.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았다. 이 시집의 추천사를 쓴 하상만 시인은 굳이 전주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시집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하상만 시인은 마산이 고향이며 고등학교까지 마산에서 마쳤다. 주석을 붙이지 않은 것은 하상만 시인의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



↑『모롱지 설화』 표지.

시집에 출몰하는 '전주말', 그중에서도 '모롱지말'을 일일이 전부 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한이 없으나 한정된 지면상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다. '포도시', '느릉거', '웅구락지다', '요시롱 캥', '박적', '마롱', '통개', '갠소롬', '달롱개', '소두방', '매니로', '그럭끼레', '뫼똥'들이 그렇다.

흔히들 표준말과 사투리라고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축약해서 성취해야 했던 우리에게 거침없는 소통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표준말은 그래서 정해졌을 것이다. 사람에게 사람의 격이 있는 것처럼 동네에도 격이 있고 말에도 격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도 표준말과 사투리 대신 '서울말'과 '전주말'이라고 써 보면 어떨까? 이 아름다운 전주말처럼 '마산말'도 '대구말'도 아름다울 것이다.

4) 사실은 전라북도 '전주말'이다.



정동철

시인. 2006년 광주일보,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나타났다』, 『모롱지 설화』 등이 있으며, 미얀마 민주화 연대시집 『붉은 꽃을 내 무덤에 놓지 마세요』를 영문으로 번역했다. 제16회 불꽃문학상과 제3회 《작가의 눈》 작품상을 받았다.

봄날은 간다

글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봄은 영 재미없다. 모두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계절을 두고 딴지를 거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언어 연구자에게 봄은 마뜩잖다. 소설가 김유정은 '봄'을 두 번이나 겹쳐 쓴 「봄봄」으로,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봄을 강렬하게 그려냈지만 언어로서의 '봄'은 할 말이 별로 없다. 어디 봄뿐이랴.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때를 가리키는 다른 말은? 나른한 봄날이니 그 말들을 찾아 소풍을 떠나봄 직하다.

계절

계절을 가리키는 말

봄은 봄이다. 세종대왕 시절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문헌을 샅샅이 뒤져 봐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도 모자라 한반도 밖 우리 겨레의 말까지 죄다 찾아봐도 다른 변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밥'도 그렇다. '밥'은 그래도 '진지, 메, 맘마' 등이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 따로 쓰는 말일 뿐이다. '쌀'도 마찬가지다. '멥쌀, 좁쌀' 등에서 과거 첫소리에 'ㅂ'이 발음되었던 'ᄡᆞᆯ'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말소리의 변화일 뿐 계통이 다른 단어는 아니다. 밥과 쌀을 우리 겨레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봄 또한 그래서 다른 변이가 나타날 틈이 없었다는, 국어학자답지 않은 해석을 붙일 수밖에 없다.

나머지 계절도 다르지 않다. '여름'은 '녀름'이었지만 첫소리 'ㄴ'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설명 가능한 말소리의 변화일 뿐이다. '가을'은 좀 낫다. 본래 'ᄀᆞᅀᆞᆯㅎ'이었으니 '가실, 갈, 갉'등의 꽤 많은 변이가 발견된다.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일 뿐이다. 이 또한 예측 가능한 말소리의 변화이지 계통이 다른 단어는 아니다. '겨울'도 'ᄀᆞᅀᆞᆯㅎ'이었으니 가을과 마찬가지로 '겨실, 결, 저슭'과 같은 부처님 손바닥 안의 변이만 보인다. '삼동'이나 '동삼'이 보여 반가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세 달 동안의 겨울을 뜻하는 '三冬'이나 '冬三'이니 김이 샌다.

재미가 없으니 시간의 길이를 늘려볼까? '일년(一年), 작년(昨年), 내년(來年)' 등등 죄다 한자어이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 아주 오랜 옛날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유한 말이 있었겠지만 한자가 들어온 이후 거의 한자어로 대치되었다. 사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대부분이 한자어이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올해'가 있어 다행이다. 이게 본래 '올ㅎ'였는데 여기에 슬그머니 때를 나타내는 조사가 붙어 '올해'가 되었다. 물론 끝소리로 'ㅎ'이 있었으니 '오래, 오리, 올게, 올기' 등이 나타난다.

달

달을 가리키는 말

시간의 길이를 좀 더 줄이면 열두 달의 이름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달을 가리키는 말도 한자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월(一月)'부터 '십이월(十二月)'까지 모두 한자를 써서 나타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쓴다. 1월은 '정월(正月)'이라 하여 조금 다르게 쓰지만 이것 또한 중국의 역법(曆法)에서 한 해의 기준이 되는 달이란 의미로 쓴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의 이름이 역법과 관계가 있고, 역법은 중국에서 받아들였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도 '오뉴월'이 있어 반갑다. '六月'은 '육월'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발음 습관 때문에 '유월'이 되었다. 이것이 '오월(五月)'과 합쳐지면 '오육월, 오륙월, 오유월' 등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다소 엉뚱하게 '오뉴월'이 된다. '六'의 본래 발음이 '륙'이니 '오륙월'에서 변한 것일까? 아니면 '오월'과 '유월'이 합쳐진 '오유월'의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오뉴월'이 된 것일까? 그 답은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우리 조상님들만 아신다. 그래도 '오뉴월의 서릿발'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5월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다고 우기고 싶겠지만 이건 음력이니 양력으로 따지면 오뉴월은 한여름이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가리키는 '섣달'에 이르러서는 할 말이 많아진다. 이 말은 '설'과 '달'이 결합한 것이고 그 사이에 'ㅅ'이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섧ᄃᆞᆯ'이 나타나야 하는데 '섯ᄃᆞᆯ'만 보인다. 이것이 '섣달'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설'이 문제다. '설날'에서도 '설'이 보이니 같은 것으로 보고 싶지만 설은 새해 첫날을 가리키지 않는가? '설'이 '해[歲]'를 가리키고 나이를 셀 때 쓰는 '살'과 기원이 같은 것은 분명하지만 '섣달'에 쓰인 '설'이 이와 같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날

날을 가리키는 말

날을 가리키는 말로 더 좁혀 보면 비로소 우리의 풍성한 밥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한자 '日'을 대신할 '날'이란 말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날을 세는 말도 모두 남아 있다. 힘들어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숫자를 세는 우리 고유의 말인 '하나, 둘, 셋, 넷…'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하루'와 '이틀'이 불규칙해 보이고 '이틀'은 한자 '二'와 관련을 짓고 싶고 '2틀'로 쓰는 이도 가끔 있다. 그러나 아니다. 오늘날 '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일'이었으니 '이틀'이 된 것이다.

'사흘'은 문해력, 아니 어휘력 논쟁을 촉발한 주범이다. 글자를 보면 '四'와 관련이 있어 보이니 '4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깨 서 말'이나 '술 석 잔'을 생각해 보면 된다. '사흘'의 첫소리는 본래 '서'였는데 말소리가 바뀐 것이다. '나흘'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인데 셋과 넷을 합쳐 '서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같은 양상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 정확히 쓸 수 있지만 복잡하고, 불규칙해서 어렵다. 게다가 어른들이 잘 안 써서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 괜히 시비 삼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다.

'사흘'에 '날'을 붙인 '사흗날'은 '섣달'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사흘'과 '날'이 결합할 때도 'ㅅ'이 끼어드니 본래 '사흫날'이다. 이뿐만 아니라 끝소리로 'ㄹ'을 가지고 있는 '이틀, 나흘, 열흘'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시옷 때문에 'ㄹ'이 떨어지고 끝의 'ㅅ'이 발음으로는 'ㄷ'이 되니 표기까지도 그리 바뀐 것이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월 삼짇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는 '삼일날'이 되어야 겠지만 여기에도 'ㅅ'이 들어가니 '삼읻날'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일(日)'이 본래 '싈'이었으니 그 영향으로 '삼짇날'이 되는 복잡한 마법이 일어난 것이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늘 '오늘'을 산다. 악착같이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오늘이니 그 기원을 파헤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어떤 이는 '온 날'로 설명하고자 하지만 솔깃하게 들리더라도 그 증거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오늘이 있으려면 하루 전의 날, 즉 '어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기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제'가 때를 가리키는 말이니 '어'를 분리할 수 있지만 뜻은 알 수 없다. '어저께'라는 말도 쓰여 '어적'도 분리할 수 있고 '적'도 때를 가리키니 여전히 '어'가 남지만 그래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다가올 날은 '내일'이니 이건 분명해 보인다. 당연히 한자어 '來日'일 테고 사전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자어라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써야 할 듯한데 거의 안 쓰고 옛 문헌에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제, 어제, 오늘, 來日, 모레, 글피'를 죽 늘어놓고 나면 의심이 더해진다. 왜 하필 '내일'만 한자어일까? 방언을 뒤져보면 의심은 확증으로 바뀐다. 한자어는 방언형이 다양하지 않은데 이 말은 '내리, 낼, 냘, 뉠, 니얼, 닐' 등으로 정신없이 나타난다. 결국 본래 고유어였는데 마침 발음이 비슷한 한자어를 갖다 붙인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때

때를 가리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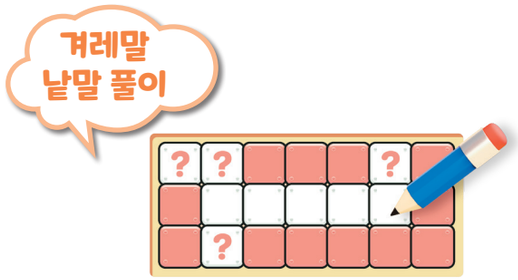
따스한 봄날, '봄'이 영 재미없어 시간을 늘이고 쪼개며 여러 말들을 살펴보았다. 입때까지 살펴본 말만으로도 봄날 하루가 다 간다. 앗! 그런데 '입때'라고? '접때'도 쓰지 않나?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왜 '이때'와 '저때'가 아닐까? 그 비밀의 열쇠는 '쌀'에 있다. '쌀'이 본래 'ᄲᅡᆯ'이었듯이 '때'도 본래 'ᄠᅢ'였다. 'ㅂ'이 괜히 쓰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음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쌀'과 '때'로 바뀌었어도 그 흔적은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봄날은 간다. 뒤이어 오는 계절의 날도 모두 간다.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오늘이 된다. 그렇게 가는 세월 속에서 말들은 변하고 사라지고 새로 생겨난다. 그런데 날은 가고 나면 그만이지만 봄을 비롯한 모든 계절은 다시 온다. 말도 그렇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일상, 잠자고 있는 옛 문헌, 그리고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의 말들을 뒤져 보면 겨레의 말들이 살갑게 다가온다. 따스한 봄처럼.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국어원 국어규범위원회 위원, 한국방언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인천 토박이말 연구』, 『우리 음식의 언어』, 『문화어 수업』, 『말과 글의 풍경』 등이 있다.



사업회에서 만든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 검색 페이지와 〈남녘말 북녘말〉 앱에서 더 많은 남북 언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 http://dic.gyeoremal.or.kr
· **남녘말 북녘말 앱:**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에서 '겨레말' 검색

① '브로콜리'의 북녘말. 같은 과의 식물인 '콜리플라워'는 북녘에서 '꽃양배추'라고 부른다.
예) {○○○○○○}는 … 양배추의 4배가 되는 비타민C 함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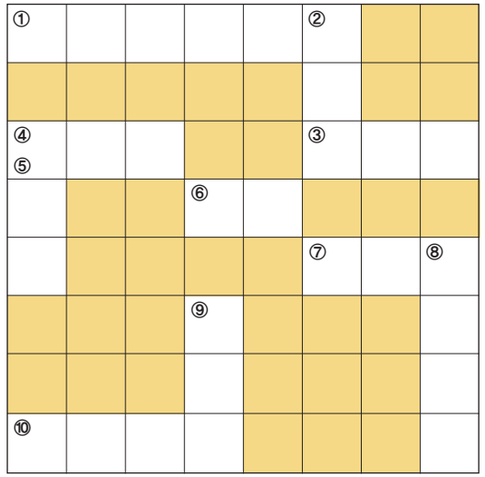
②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유형. 남녘에서는 '청유문'이라고 한다.
예) 사설의 마감은 주로 {○○○형식으로} 되여있다.《공동사설의 몇가지 문체론적특징》(북)

③ 남녘의 '표준어'와 같이 북녘에서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규범어로 평양말을 중심으로 제정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평양○○○보호법'을 제정했다.
예) 《의사》를 [으사], 《의지》를 [으지]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표준발음이} 아니다.《모음의 발음을 정확하게》(북)

④ 남녘의 '미역국을 마시다'처럼 시험 등에 합격하지 못하고 낙제하는 것을 농담으로 말할 때 북녘에서는 '이 국'을 먹는다고 표현한다.
예) 계묵은 두번씩이나 거퍼 {○○○을} 먹은것이다.《불타는 시절》(북)

⑤ '땅콩'을 달리 이르는 한자어로 북녘에서는 '땅콩'보다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
예) "이건 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아니라 감자알처럼 뿌리에 달리는 {○○○이랍니다}."《나의 사랑》(북)

⑥ 북녘에서 호랑이가 사납게 울부짖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예)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덤벼들어 {○○-} 하고 한입에 삼킬것만 같았습니다.《그림속의 호랑이》(북)



⑦ 국보다 국물이 적고 진한 맛이 나는 '찌개'를 뜻하는 북녘말. 주재료에 따라 된장○○○, 김치○○○, 고추장○○○ 등이 있다.
예) 시금치로는 국이나 볶음, 무치개, {○○○} 등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수 있다.《봄나물 시금치》(북)

⑧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다음에 나오는 음악으로, 남녘에서 흔히 '시그널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의 북녘말.
예) 이윽고 텔레비죤에서 {○○○○이} 울리고 순서가 소개되였다.《간이역에서》(북)

⑨ 재빠른 손놀림, 여러 장치, 속임수 등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해 보이는 '마술사'를 북녘에서 부르는 말.
예) 비유해 말하면 {○○○가} 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헛동작을 하면서 그리로 시선이 쏠리게 하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뒤집기의 '이웃사촌'》(북)

⑩ '이모작'을 가리키는 북녘말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만 수록돼 있다. 북녘에서 '일모작'은 '외벌농사', '삼모작'은 '세벌농사'라고 한다.
예) 우리 농장에 적합한 {○○○○작물을} 찾아낼수가 없어 안타깝기만 하였다.《값높은 삶의 길은》(북)

정 답

①푸른꽃양배추	②추김문	③문화어	④락제국
⑤락화생	⑥따웅	⑦지지개	⑧개시음악
⑨요술사	⑩두벌농사		

2026년 함께 만드는 《겨레말》

2026년 겨레말 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독자 퀴즈의 정답과 의견을 작성하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총 다섯 분을 선정하여 온라인 상품권(3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자주 쓰이는 북녘말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칭찬에는 '○○', 비난에는 '○○'이 쓰인다.
단서! 34쪽 〈남녘말 북녘말〉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6년 5월 31일까지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겨레말 독자 이벤트♥

2025년 가을호 독자 의견

북한의 신어(新語)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구름계산

[겨레말 초대석]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홍상영 사무총장님과의 인터뷰 〈우리의 동행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의 역사와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_임○성

[기획특집] 언어의 신세계
남북한은 물론 해외에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 미래 통일의 주역이 될 그들의 신어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서로 거리감 없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민족화합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회 문화적 교류 속에서 언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가며 통일을 준비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_유○열

이 꼭지를 통해 시대의 변화가 언어에 얼마나 생생하게 반영되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 문화, 사회 현상 속에서 태어난 신조어들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의 변화는 곧 세상의 변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말들이 생겨날지 기대도 되었습니다. 우리말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_이○은

[기획특집] 요즘 말을 이해하는 두 가지 패턴
처음에는 줄임말이라고 하면 '긴 단어를 사용하기 쉽게 줄여서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목 그대로 '언어의 신세계'를 보게 됐고 요즘말의 감수성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트렌드에 따라 말의 길이가 줄었지만 잘 들여다 보면 세심하게 그 뜻을 전달하여 소통하는 우리 줄임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대에 역행하지 않고 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언어의 감을 익히겠다 다짐해 봅니다. _안○섭

[겨레말 탐구생활] 뜻풀이 깁고 더하기
'마술사'와 '요술사'라는 두 단어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비교해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남북 두 국어사전에 모두 실려 있지만 실제 쓰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예문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유용하고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_김○라

한눈에 보는 남녘말 북녘말 앱



아이스크림, 스마트폰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

믿을 만한 남북 언어 검색 앱 **남녘말 북녘말**
지금 앱 스토어에서 **남녘말 북녘말**을
검색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남녘말 북녘말

안드로이드

IOS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다양한 SNS 채널을 만나 보세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